

중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과 영향요인

Middle-Aged and the Elderly People's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in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is anxiety. The data, derived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were collected from Survey Research Center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samples included 821 people over the age of 40, including 529 middle-aged people who were from 40 to 59, and elderly people who were over 6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ag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had crucial effects on the entire group's anxiety about unemployment and poverty, housing prices,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recession in the older life. For the middle-aged group, age in particular had crucial effects on all the components of its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For the elderly group, geographical region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that affected its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the elderly people who were living in metropolitan area and towns had more anxiety than those who were living in rural areas. In particular, region was the only factor that affected the elderly group's anxiety about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reces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specific age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had the crucial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hsh@kmu.ac.kr)

effects while their sex, educational level,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ir spouse had no effects on their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Objective economic indices such as their earned-income and other income including savings and pensions had no effects on their anxiety level. While as noted above subjective economic indices such as their standard of living compared with their parents, projected economic status, and level of socio-economic success had an effect on 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Key Words : 경제적 노후불안(anxiety about economic change in older life), 부모 비교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compared with parents), 미래 경제상태(projected economic status), 사회경제적 성공(level of socio-economic success)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노후불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구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터운 인구 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곧 합류하게 될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7년 말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해 70~9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로 편입되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조선일보, 2017. 2. 22일자).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한 축으로, 사회 전체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보험료와 연금을 낼 청년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수령자는 계속 늘어나는 인구 구조가 지속되면서 복지비용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국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는 노동생산성의 저하, 소비와 저축,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 성장 동력의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박형수·홍승현, 2011; 조명덕, 2010), 노인층과 젊은층의 일자리 경쟁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박길성, 2011).

개인적 측면에서는 노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자원의 부족, 신체적인 노화 및 질병, 인지적인 노화 등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백지은, 2015). 노후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Lynch, 2000)으로, 소득의 상실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순돌·정유경, 2012).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및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이 유지되지 못하면 노후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할 수 있으며 노후의 안녕과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노후불안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것이 경제적 노후불안이다. 노인과 고령화 사회를 다룬 신문기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주로 다루고 있거나(정순돌·박현주·김보경, 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보건복지부(2010)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으로 ‘세금증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관심시

경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노후불안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도 더욱 커진다. 노후준비의 개념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의 3가지 영역(김양이·이채우, 2008; 이정화, 2009; 김주성·최수일, 2010)으로 제시되기도 하나, 개인의 노후준비 및 노후불안에 대한 연구(홍성희·곽인숙, 2006; 이선형·최은희, 2010; 조성숙·서훈, 2011; 박창제, 2016)에서는 경제적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의 수준이 낮으며, 그 중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낮다는 점에 대체로 일치하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정경희 외, 2010; 신계수·조성숙, 2011; 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2).

최근 노후불안 및 노후준비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집단은 중장년층이다.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지출과 결혼 후까지 지원하는 과도한 부양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자신은 자녀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세대 특성으로 인해 ‘끼인 세대’(caught generation)(Orthner, 1981) 혹은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Miller, 1981)로 지칭되며,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맞게 될 첫 세대로 집약되기도 한다(백은영, 2011).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부양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의 노후 경제적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4.6%로 가장 높았다(이윤경, 2013). 한편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수준이 급격히 높아졌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등 이전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을 경험한 세대(Zapolsky, 2003을 박주희,

2016에서 재인용)라는 점에서 부모 세대와 비교된다.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유리한 재무구조, 나아가 노후준비상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달리 노후준비수준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방하남 외(2010)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은 높지만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은 오히려 이전세대에 비해 낮았다. 또한 정순돌과 이현희(2012)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을 예비노인세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층은 노후준비에 대해 노인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더욱 노후 경제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에 이른다. 또한 66-74세 노인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보다 3배 높고, 7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 인구 빈곤 위험의 3.3배로(OECD, 2011를 박창제, 2016에서 재인용)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고령화될수록 심각한 빈곤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의 경제적 여건은 여러 생활영역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만성질병, 배우자의 사망 등은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 또한 저하된다(박선영, 1999). 노년기의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 수입에 대한 만족과 행복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으며(Larson, 1977),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이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Klemmack & Roff, 1984). 따라서 노년기의 경제적 여건과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노후불안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년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향상된 소득

과 생활수준을 기반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으며 노후 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여건과 실행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불안요인을 갖고 있다. 중년층의 이전 세대인 노년층은 자녀부양을 받는 세대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장년층을 보냈고 앞으로도 빈곤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서 경제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세대이다.

특히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후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인식되며 노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노후 빈곤을 우려하는 현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앞서 경제적 노후불안을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노후 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개인과 사회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인지하는 정도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상황에 직면시키고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과 이전 세대인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예상하는 한 단면으로서 이들의 경제적 노후불안이 각각 다른 구조와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두 집단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노후불안의 다양한 측면, 즉 개인의 은퇴 또는 실직의 우려, 거시적 요인인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대해 인식하는 불안의 다양성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개인의 노후 경제적 상태에 대한 문제점과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처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노후준비방안을 시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전 생애주기 동안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생애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중년층과 노인층의 경제적 불

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세대의 요구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 예를 들면 중고령자 고용지원방안, 금융지원정책 및 금융상품, 노인거지지원정책 등을 개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불안의 개념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곧 불안이다(박수에·송관재, 2005; 홍영오 외, 2006). Lazarus와 Lazarus (1994)에 의하면 불안은 특정사건이나 상황이 자신의 생명 또는 행복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각할 때 일어난다(박수에·송관재, 2005에서 재인용).

불안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사건이나 특성 또는 사회적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으로 개념화된다. 사회적 불안은 자신과 속해있는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으로 인해 느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제적 위기, 교육 문제, 안전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이 보다 일반화된 것이다. 또한 개인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사건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적 불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대상이 모호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불안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초한 불안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불안이다(홍영오 외, 2006). 그러므로 개인이 노후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불안 또는 은퇴가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도 사회적 불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포기하는 행동을 상대적으로 자주 보이며 낮은 사람과 비교해 소망적 사고, 문제 회피적 행동 등 주로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불안은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되며, 구성원 전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박수에 외, 2005)에서 고령화 사회에 편입된 우리나라 성인들은 노후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Lasher와 Faulkender(1993)는 노후불안의 개념을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상실에 대한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들은 복합적인 노후불안의 개념을 4가지 차원(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초월 영성적 차원)과 3가지 유형(노화과정의 두려움,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된 노인이 되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4가지 차원과 3가지 유형의 두려움을 조합한 다차원 노후불안모델을 제안하고, 실증조사와 분석을 통해 노후불안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두려움의 4개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첫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노후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떠나거나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이 요인은 심리적 걱정보다 더 외적이고 실제적인 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친구관계, 신체적 건강, 의사결정권,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심리적 불안정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노화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당면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나타낸다. 셋째,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예를 들면, 노인들과 함께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노인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성과 질에 초점이 있다(Lasher & Faulkender, 1993). 즉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에 대한 느

김과 관련 있는 것이다(Harris & Dollinger, 2003). 넷째, 신체적 두려움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외모 변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박수애와 송관재(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불안은 추후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Harris, & Dollinger, 2003). 즉, 노후불안은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며(유용식, 2013), 노후준비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Harris, & Dollinger, 2003). 노후준비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최태을·권경주·최미영, 2016). 그러므로 노후불안은 노후 삶에 대한 대처와 준비를 통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온 노후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1993)의 노후불안의 개념과 척도를 인용해왔다. 이 척도는 노후불안을 건강, 경제에 대한 불안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상실에 대한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정 등 심리적 반응만을 측정할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와 노후불안요인으로 대두된 경제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불안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노후불안을 노후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취약성과 문제로 인한 불안으로 정의한다.

2. 관련연구의 고찰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심리학 분야의 초기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루었으며, 사회학 분야에서는 주로 사회의 위기 의식과 안전 문제를 다루어 왔다(설동훈, 1998; 김

왕배, 2002).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 전반에서 노후불안의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에서 노년기의 노후불안에 대한 연구(정순돌·이현희, 2012; 최혜지·정순돌, 2012; 유용식, 2013; 백지은, 2015; 최태을 외, 2016)가 활발하다. 중년층 또한 노년기 진입 이후 노인으로 살아가게 될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경제적 노후불안에 대처하는 자원관리와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홍성희·곽인숙, 2006; 이정화, 2009; 이선형·최은희, 2010)가 시도되고 있다.

Lasher와 Faulkender(1993)가 노후불안척도를 개발한 이후 노후불안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노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노후불안의 관련성 또는 노후준비의 선행조건으로서 노후불안을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불안을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전반적인 노후불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실태와 영향요인을 고찰한다.

노후불안의 수준을 조사한 최순옥 외(2008)는 Lasher 와 Faulkender(1993)의 AAS(Aging Anxiety Scales)를 사용해 20~60세 성인의 노후불안을 분석한 결과 노후불안의 4가지 요인 중 가장 불안감이 높았던 요인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며, 가장 낮았던 요인은 '심리적 불안정'이었다.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 경험은 넓은 의미에서 고령화 자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노후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즉,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결과는 노화과정을 젊음과 건강을 상실하고 신체적 의존성과 노쇠함이 증가하는 시기로만 조명하는 생의학적 관점, 그리고 성공적 노화를 외형적,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노화개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순돌과 정윤경(2012)은 청년, 중년, 노년에 해

당되는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집단의 노후불안수준을 비교하였다.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후불안감이 가장 높았는데, 청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현재 노후의 삶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노후불안에 더 직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혜지와 정순돌(2012)은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기준으로 노후불안을 비교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저지식-부정 태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노후불안수준을 보였다.

백지은(2014)은 노인의 노후불안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노후불안의 네 가지 요소, 즉 심리적 불안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해 더 컸다. 연구자는 노후불안감이 복합적인 차원으로, 친구의 상실, 건강과 판단 및 처리능력의 상실 경험, 외모의 노화,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감, 동년배 집단과의 관계 불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백지은(2015)이 조사한 노인의 노후불안요인 네 가지 중에서는 심리적 불안정이 제일 크며, 다음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노후불안요인을 비교한 최순옥 외(2008)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으로, 대상자의 연령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노후불안의 영향요인으로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교육과 같은 경험 요인, 그리고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주관적 태도 요인을 들 수 있다. 이정희, 안영식과 윤소정(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에 대한 교육경험에 따라 노화 지식과 노후불안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노후불안 중 심리적 불안정 수준이 낮았으며, 노인에 대한 교육 또는 학

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특히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직접, 간접 경험이 막연한 노후불안감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혜지와 정순돌(2012)의 연구에서는 성인남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노후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연수, 가족총수입 중에서는 교육연수만 노후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들은 노인에 대한 지식보다 태도가 노후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결과를 객관적 지식보다 정서적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더구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후불안이 높았던 결과는 개인의 노후불안이 노화와 노인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근거해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왜곡된 지식이나 편견이 오히려 노후불안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순옥 외(2008)는 개인적 특성과 경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월수입, 교육수준, 건강상태, 그리고 노인동거경험에 따라 노후불안의 각 요인과 총 노후불안수준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노후불안의 네 가지 구성요소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에서 50대의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30대에 비해 ‘심리적 불안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총 노후불안수준이 가장 높은 층은 40대였다. 즉, 중년층이 노후문제를 어느 연령층보다 어려운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년층은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수입에 따라 노후불안에 차이를 보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결과는 노후불안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 높은 것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며, 20대, 교육수준이 높은 군, 대학생 군, 그리고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군에서 높았던 것이다. ‘노인에 대한 두려

움’은 자신의 노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요인, 즉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된 노인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나 느낌과 관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로 젊은 층에서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결과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무지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지은(2015)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변수를 활용하여 노후불안을 분석하였다. 여성노인의 노후불안 정도가 남성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적은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동년배에 비해 좋지 않은 경우 노후불안이 더 컸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저하되고,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사는 가족 배경, 건강상태 악화 등 열악한 환경여건이 노후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준비의 측면에서 노후불안을 부분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이소정(2009)은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해 많은 관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준비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노후생활에서 건강과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실제 준비수준은 낮으므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한 정순돌 외(2011)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사들이 경제적인 인식과 대책을 중심으로 다룬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정순돌과 이현희(2012)는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의 노후준비수준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 가지 영역 중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적 및 신체적 노후준비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제적, 신체적 자원에 대한 준비가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다. 유용식(2013)이 분석한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노후태도, 노후불안이었으며, 이 중 노후불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상에서 초기 노후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Lasher와 Faulkender(1993)의 노후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해 우리나라 성인 또는 노인의 노후불안수준과 하위 요소를 비교하는 주제들을 시작으로 이후 노후불안의 영향요인을 세분화하고 세대별로 비교하는 분화를 보이고 있다. 또 노후불안을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효과 등 노화와 관련된 요인의 하나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으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성인 대상으로 폭 넓게 조사하거나 노후불안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에 대한 비교 조사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노후불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경제적 노후불안은 궁극적으로 노후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에서 고령화 시대를 살게 될 중노년층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를 보내게 될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생활계획, 노후준비 등의 대비가 절실하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청장년기부터 계획하고 적정 수준의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노후불안의 요소를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인식하는 경제적 노후불안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두 집단

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특성과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노후불안 또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별개로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인식되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경제적 노후불안을 4가지 하위요인, 즉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향후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 등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국가부채·주가 폭락·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경기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는 개인과 가족의 특성 변수 이외에 경제적 상태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경제상태요인과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노후불안은 노후의 경제상태에 대한 불안을 인식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객관적인 경제상태 뿐 아니라 이를 과거 및 미래와 비교하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년층과 노년층의 개인적 특성, 객관적 경제상태요인,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에 따라 경제적 노후불안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전체 대상자 및 중년층,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적 노후불안으로, 노후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불안요인 4가지(실업 및 빈곤불안, 주택가격불안, 금융 불안, 경기불안)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객관적 경제상태

요인,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

이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한국의 주요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표본은 19세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불안	노후 경제생활과 관련된 위험 및 불안요인(4문항): 실업 및 빈곤 불안, 주택가격 불안(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폭등 및 폭락), 금융 불안(국가 및 가계부채, 주가폭락, 환율폭등 불안), 경기불안(경기 침체 및 저성장 불안) 1=전혀 높지 않다 2=거의 높지 않다 3=별로 높지 않다 4=중립 5=다소 높다 6=상당히 높다 7=전적으로 높다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배우자 취업유무 거주지역(농촌)	1=여성 0=남성 만 나이 교육받은 연수(년) 1=있음 0=없음 1=취업 0=비취업 1=대도시 2=소도시
객관적 경제상태요인 월평균근로소득(만원) 기타소득(만원)	본인의 현재 주된 일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본인의 월평균근로소득 외 소득(기타 근로소득, 이자,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총액)
주관적 경제상태요인 계층귀속감 비교소득수준 부모 비교생활수준 자녀 미래생활수준 과거 비교생활수준 미래경제상태 사회경제적 성공	한국사회계층 중 본인이 속한다고 인지하는 계층 1=최하층 10=최상층 일반적 가정과 비교한 본인 가정의 소득수준 1=평균보다 훨씬 낮다 5=평균보다 훨씬 높다 부모세대와 비교한 본인의 생활수준 1=훨씬 나빠졌다 5=훨씬 좋아졌다 본인과 비교한 자녀세대의 생활수준 전망 1=훨씬 나빠질 것이다 5=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경제상태의 변화 정도 1=상당히 나빠졌다 5=상당히 좋아졌다 향후 10년 이내 경제상태의 변화 정도 1=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5=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본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정도 인식 1=크게 실패 5=크게 성공

이상 성인남녀를 다단계 지역확률표집법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교육받은 면접조사원이 대면조사방식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조사대상자 1,370명 중 40대 이상 821명을 분석하였다. 중년층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는 529명이며, 중년층의 비교집단으로서 사용된 60대 이상 노년층은 292명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중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및 VIF 계수를 산출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집단, 그리고 중년층, 노년층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표 2).

조사대상자 전체 집단 중에서는 여성이 55.2%로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자가 41.0%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은 평균 약 56세이며, 배우자를 둔 대상자가 약 81%, 배우자 중 취업자가 30.0%였다. 거주지역 분포는 대도시 거주자가 49.9%로 약 반을 차지하며 소도시, 농촌거주자의 순이다. 객관적 경제상태를 반영한 요인으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409만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기타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9.9%에 해당하며 이들의 월평균 기타소득은 903만원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개

인편차가 크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계층귀속감은 총 10단계 중 4.76으로 중간단계인 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백분율 분포를 중심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하’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약 39%로 가장 많으며, ‘중’, ‘상’ 집단도 각각 약 30%에 달해 계층귀속감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사회의 일반적인 가정의 소득수준과 비교한 비교소득수준은 평균 2.66으로 중앙값에 못 미치며,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하’로 인식한 집단이 가장 많은 43.5%에 달했다. 부모가 자신의 나이였을 때의 생활수준과 자신의 생활수준을 비교한 평균은 4.02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생활수준을 자신의 과거, 부모세대, 자녀세대와 비교해 인식하는 3가지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상’ 집단이 40.1%로 가장 많고, ‘중’ 이상에 속하는 대상자가 약 75%로 부모세대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진 상태로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본인과 비교한 자녀의 미래생활수준을 ‘중’으로 전망하는 대상자는 39.2%로, 상 또는 하로 전망하는 대상자보다 약간 많았다. 또한 과거 몇 년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의 변화를 ‘중’으로 인식한 집단이 가장 많은 41.3%를 차지한다. 향후 10년 간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은 3.34점이며, ‘상’으로 전망한 대상자들이 45.2%에 달한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한 현재 생활수준에 비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평균 3.11, 그리고 ‘중’ 집단 대상자들이 57.2%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경제적 노후불안의 4개 요인 중에서는 경기불안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실업 및 빈곤불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년층 집단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 전체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52.99%이며, 도시거주자 56.5%, 취업한 배우자가 86.2%에 달한다. 그러므로 중년층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객관적 경제상태요인,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의 실태

변수명	집단	전체 (N=821)		중년층(N=529)		노년층(N=292)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368	44.8	231	43.7	137	46.9
	여성	453	55.2	298	56.3	155	53.1
교육수준	중졸이하	178	21.7	40	7.6	138	47.3
	고졸	273	33.3	209	39.5	64	21.9
	전문대졸이상	337	41.0	280	52.9	57	19.5
배우자 유무	무	154	18.8	73	13.8	81	27.7
	유	667	81.2	456	86.2	211	72.3
배우자 취업유무	취업	246	30.0	358	67.7	70	24.0
	비취업	421	51.2	98	18.5	141	48.3
거주지역	농촌	125	15.2	42	7.9	83	28.4
	소도시	286	34.8	188	35.5	98	33.6
	대도시	410	49.9	299	56.5	111	38.0
계층귀속감	상	248	30.2	180	34.0	68	23.3
	중	252	30.7	166	31.4	86	29.5
	하	321	39.1	183	34.6	138	47.3
비교소득수준	상	184	22.4	150	28.4	30	11.0
	중	280	34.1	201	38.0	75	27.6
	하	357	43.5	178	33.6	167	69.4
부모비교생활수준	상	329	40.1	200	37.8	129	44.2
	중	286	34.8	198	37.4	88	30.1
	하	206	25.1	131	24.8	75	25.7
자녀미래생활수준	상	261	31.8	154	29.1	107	36.6
	중	322	39.2	208	39.3	114	39.0
	하	237	28.9	167	31.6	70	24.0
과거비교생활수준	상	246	30.0	178	33.6	68	23.3
	중	339	41.3	197	37.2	142	48.6
	하	236	28.7	154	29.1	82	28.1
미래경제상태	상	372	45.3	279	52.7	93	31.8
	중	315	38.4	176	33.3	139	47.6
	하	134	16.3	74	14.0	60	20.5
사회경제적 성공	상	218	26.6	143	14.6	75	25.7
	중	473	57.6	309	58.4	164	56.2
	하	130	15.8	77	27.0	53	18.2

〈표 2〉 계속

변수명	전체(N=821)		중년층(N=529)		노년층(N=29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56.18	12.43	48.36	5.79	70.40	7.75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4098.67	4746.37	3063.62	4357.65	6036.96	4821.60
월평균 기타소득(만원)	9028.18	2936.66	9123.67	2799.93	8869.62	3171.95
월평균가구총소득(만원)	415.16	339.65	597.82	805.63	231.96	258.83
계층귀속감	4.76	1.72	4.97	1.64	4.39	1.80
비교소득수준	2.66	1.03	2.88	.99	2.25	.99
부모비교생활수준	4.02	1.05	3.99	1.05	1.93	1.05
자녀미래생활수준	3.90	1.02	3.83	1.04	1.99	1.03
과거비교생활수준	2.99	.915	3.02	.94	3.05	.86
미래경제상태	3.34	.89	3.46	.87	2.87	.88
사회경제적 성공	3.11	.77	3.15	.74	3.08	.83

* 결측값으로 인해 일부 집단 대상자수에 차이가 있음 :

교육수준 전체(N=788), 노년층(=259), 배우자 취업유무 전체(N=667), 중년층(N=456), 노년층(N=211)

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요인은 계층 귀속감, 비교소득수준, 부모비교생활수준, 과거비교생활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상, 중, 하 집단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이 하에 속하는 집단이 전체 및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상 집단이 적은 분포를 보인다. 한편 미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상으로 전망하는 집단이 다소 많다. 따라서 중년층 집단은 상대적으로 젊고 직업과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령대로 현재의 성취도에 만족하지는 않으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 집단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관적 경제상태요인 중 계층귀속감이 낮고, 비교 소득수준 하에 속하는 대상자가 현저하게 많다. 이들은 이미 소득의 상실 및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세대 또는 자신의 과거와 비교한 생활수준이 상 또는 중 집단에 속하

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은 고령으로 인해 소득수준은 낮지만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중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의 차이

중노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경제적 노후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적 노후불안 4개 요인에 대한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및 Duncu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소득 관련변수인 객관적 경제상태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몇 개 집단으로 구분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일원분산분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제적 노후불안 중 첫째,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도시 거주자의 실업 및 빈곤불안이 농촌 또는 대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았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변수에 따라 실업 및 빈곤불안에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귀속감, 비교소득수준, 부모세대 비교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각 변수 중 하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이 가장 높고, 중, 상 집단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미래생활수준에 따라 상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이 하 또는 중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또한 과거 생활수준과 비교한 현재 생활수준에 따라 하 집단은 중 및 상 집단에 비해 높은 실업 및 빈곤불안을 인식하였다. 미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이 하인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이 중 또는 상 집단보다 높았다. 한편 사회경제적 성공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실업 및 빈곤불안의 인식 수준이 낮았다.

둘째, 주택가격 불안은 거주지역, 그리고 모든 주관적 경제상태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촌 거주자의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소도시 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낮았다. 이는 농촌지역 주택의 가격 등락폭이 적고, 인구가동이 적은 주택시장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계층귀속감에 따라 상 집단의 주택가격불안이 하 또는 중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비교소득수준, 자녀 미래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상 집단의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하 집단에 비해 낮았다. 부모 비교생활수준의 세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하며, 하, 중, 상 집단의 순으로 불안을 높게 인지하였다. 과거와 비교한 현재 생활수준, 그리고 미래 경제상태에 따라 하 집단이 느끼는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중, 상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불안수준을 낮게 인지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 취업 유무와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금융 불안에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취업한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이 더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또한 농촌 거주자의 금융 불안수준이 소도시

또는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낮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변수 중 계층귀속감에 따라서는 하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이 상, 중 집단에 비해 높았다. 부모 비교생활수준의 세 집단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미래생활수준에 따라 하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이 상 집단에 비해 높았다. 과거 비교생활수준, 그리고 미래 경제상태 전망이 하에 속하는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이 중 및 상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성공의 집단별로 금융 불안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이 낮을수록 금융 불안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넷째, 경기불안수준은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 취업유무와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취업한 집단의 경기불안수준이 더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의 경기불안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소도시 또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기불안수준이 농촌 거주자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변수 중 계층귀속감, 부모 비교생활수준, 과거 비교생활수준, 그리고 미래 경제상태에 따라 하 집단의 경기불안수준이 상 또는 중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미래생활수준에 따라서는 하 집단의 경기불안수준이 상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이 낮을수록 경기불안수준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기불안은 비교소득수준을 제외한 주관적 경제상태를 낮게 인식한 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년층과 노년층의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불안의 차이 (N=821)

변수명	집단	실업 및 빈곤 불안		주택가격불안		금융불안		경기불안	
		평균	T/F값	평균	T/F값	평균	T/F값	평균	T/F값
성별	남성	4.19		4.34		4.25		4.38	
	여성	4.08	N.S.	4.25	N.S.	4.19	N.S.	4.31	N.S.
배우자 유무	무	4.12		4.28		4.24		4.37	
	유	4.19	N.S.	4.29	N.S.	4.14	N.S.	4.24	N.S.
배우자 취업유무	취업	4.10		4.33		4.33		4.45	
	비취업	4.13	N.S.	4.21	N.S.	4.09	2.255*	4.22	2.251*
교육수준	중졸이하	4.21		4.12		3.95 B		4.11 B	
	고졸	4.16	N.S.	4.39	N.S.	4.37 A	6.242**	4.40 A	4.463*
	전문대졸이상	4.08		4.35		4.31 A		4.46 A	
거주지역	농촌	4.01 B		3.87 B		3.83 B		3.95 B	
	소도시	4.32 A	4.239*	4.43 A	7.054***	4.36 A	7.075***	4.47 A	7.346***
	대도시	4.08 B		4.32 A		4.25 A		4.37 A	
계층 귀속감	하	4.45 A		4.55 A		4.42 A		4.54 A	
	중	4.13 B	19.829***	4.21 B	9.703***	4.19 B	7.629**	4.28 B	7.010**
	상	3.73 C		4.04 B		3.99 B		4.15 B	
비교소득 수준	하	4.39 A		4.42 A		4.34		4.43	
	중	4.08 B	16.993***	4.28 AB	4.123*	4.16	N.S.	4.35	N.S.
	상	3.69 C		4.05 B		4.09		4.16	
부모비교 생활수준	하	4.67 A		4.79 A		4.62 A		4.67 A	
	중	4.17 B	29.357***	4.31 B	23.482***	4.25 B	16.673***	4.34 B	11.032***
	상	3.76 C		3.96 C		3.95 C		4.14 B	
자녀미래 생활수준	하	4.33 A		4.51 A		4.41 A		4.54 A	
	중	4.18 A	6.887**	4.31 AB	6.083**	4.28 A	6.699**	4.34 AB	5.274**
	상	3.89 B		4.07 B		3.99 B		4.16 B	
과거비교 생활수준	하	4.50 A		4.68 A		4.50 A		4.63 A	
	중	4.03 B	12.651***	4.15 B	13.194***	4.17 B	8.323***	4.28 B	8.960***
	상	3.92 B		4.11 B		4.03 B		4.15 B	
미래경제 상태	하	4.51 A		4.84 A		4.54 A		4.69 A	
	중	4.12 B	6.891***	4.20 B	12.679***	4.17 B	4.562*	4.30 B	5.869**
	상	4.01 B		4.17 B		4.15 B		4.25 B	
사회경제 적 성공	하	4.69 A		4.73 A		4.63 A		4.67 A	
	중	4.19 B	24.920***	4.36 B	16.975***	4.28 B	16.168***	4.39 B	10.868***
	상	3.67 C		3.88 C		3.84 C		4.04 C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집단의 경제적 노후불안 중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수준은 연령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부모 비교생활수준으로 부모세대와 비교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인지할수록 불안수준이 낮았다. 또한 농촌거주자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그밖에 비교소득수준, 사회경제적 성공, 계층귀속감, 기타 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조사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40대, 50대와 60대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두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40, 50대 중년층의 경우 연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연령이 적을수록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 비교생활수준으로 부모세대에 비해 생활수준이 좋아졌다고 인지할수록 불안수준이 낮았다. 또 일반가정과 비교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지할수록 실업 및 빈곤불안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전체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에 유의한 변수였던 거주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60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 및 빈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과 부모 비교생활수준 두 가지 변수로 압축되었다. 소도시 거주자의 실업 및 빈곤불안수준이 가 농촌거주자에 비해 높았으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농촌거주자에 비해 불안이 높았다. 부모 비교생활수준은 실업 및 빈곤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사대상 전체의 주택가격불안에 영향을

〈표 4〉 전체, 중년층, 노년층의 실업 및 빈곤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체(N=821)		중년층(N=529)		노년층(N= 292)	
	B	β	B	β	B	β
성별	-.121	-.044	-.072	-.027	-.269	-.092
연령	-.018***	-.159	-.036***	-.156	-.023	-.120
교육수준	-.030	-.035	-.018	-.017	-.042	-.047
배우자유무 ^D	.597	.170	.885	.230	-.105	-.032
배우자취업유무 ^D	.062	.136	.079	.162	-.009	-.021
거주지역(농촌) ^D						
대도시	.230	.084	-.018	-.007	.426*	.142
소도시	.363**	.126	.069	.025	.593**	.193
월평균근로소득(만원)	4.58E-006	.017	-1.43E-006	-.005	2.77E-006	.009
기타 소득(만원)	3.29E-005*	.070	1.93E-005	.041	5.31E-005	.116
계층귀속감	-.064*	-.080	-.060	-.074	-.072	-.089
비교소득수준	-.158**	-.119	-.166*	-.124	-.159	-.108
부모 비교생활수준	-.200***	-.153	-.173**	-.137	-.218**	-.157
자녀 미래생활수준	-.063	-.046	-.058	-.046	-.089	-.059
과거 비교생활수준	-.044	-.029	-.021	-.015	-.122	-.072
미래 경제상태	-.101	-.065	-.112	-.073	-.073	-.044
사회경제적 성공	.177**	.098	-.176*	-.098	-.180	-.101
상수	5.921***		7.665***		8.467***	
R ² (Adj. R ²)	.162(.145)		.146(.120)		.217(.171)	
F값	9.697***		5.491***		4.744***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거주지역, 부모 비교생활수준, 미래 경제상태, 사회경제적 성공 등이었다. 연령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역이 큰 영향을 미쳐 농촌보다는 대도시나 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불안수준이 높았다. 또한 부모세대와 비교한 자신의 경제상태, 미래 경제상태 예측, 사회경제적 성공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판단이 주택가격 불안감에 중대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중년층의 경우 미래 경제상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미래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낮아졌으며, 다음으로는 부모세대와 비교해 경제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지할수록 불안수준이 낮았다. 또 중년층 집단 내에서도 연령

이 많을수록 주택가격 불안 수준이 높아졌다. 노년층의 경우 주택가격 불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역이었다. 대도시 거주자의 주택 및 전세가격에 대한 불안이 농촌 거주자에 비해 0.916점 높았으며, 소도시 거주자의 불안이 농촌 거주자에 비해 0.809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에 큰 편차가 있고 가격의 등락 폭이 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세대와 비교해 자신의 경제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지할수록 주택가격 불안수준이 낮았다.

셋째, 전체 대상자의 금융 불안수준에는 거주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농촌보다는 대도시나 소도시 거주자의 불안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았다.

〈표 5〉 전체, 중년층, 노년층의 주택 및 전세가격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체(N=821)		중년층(N=529)		노년층(N= 292)	
	B	β	B	β	B	β
성별	-.035	-.012	.024	.009	-.167	-.058
연령	-.023***	-.204	-.029**	-.124	-.018	-.096
교육수준	.012	.014	.028	.026	-.021	-.024
배우자유무 ^D	.610	.169	1.269	.322	-1.251	-.386
배우자취업유무 ^D	.071	.151	.142	.285	-.173	-.394
거주지역(농촌) ^D						
대도시	.610***	.174	-.063	-.023	.916***	.307
소도시	.492***	.167	-.030	-.011	.809***	.263
월평균근로소득(만원)	8.66E-008	.000	-8.55E-006	-.027	8.52E-006	.028
기타 소득(만원)	2.98E-005	.062	9.59E-006	.020	5.04E-005	.110
계층귀속감	-.053	-.065	-.057	-.069	-.073	-.090
비교소득수준	-.103	-.076	-.099	-.072	-.105	-.071
부모 비교생활수준	-.201***	-.150	-.182**	-.141	-.184*	-.133
자녀 미래생활수준	-.031	-.022	-.045	-.034	-.024	-.016
과거 비교생활수준	-.048	-.031	-.018	-.012	-.118	-.070
미래 경제상태	-.196***	-.123	-.223**	-.142	-.136	-.083
사회경제적 성공	.185**	.100	-.151	-.082	-.248*	-.139
상수	5.948***		7.053***		8.924***	
R ² (Adj. R ²)	.168(.152)		.124(.097)		.230(.185)	
F값	10.157***		4.535***		5.127***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다. 주관적 경제적 상태 변수로 부모 비교생활수준, 사회경제적 성공, 계층귀속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금융 불안에는 연령이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쳐 연령이 적을수록 금융 불안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성공, 부모 비교생활수준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거주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이 느끼는 금융 불안에는 거주지역변수만 영향을 미쳤다. 대도시 거주 노년층은 농촌 거주 노년층에 비해 금융 불안수준이 0.609점 높았으며, 소도시 거주자인 경우 농촌거주자에 비해 0.641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경제적 불안요인 중 경기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농촌보다는 대도시나 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불안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경기불안의 수준이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성공과 미래경제상태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 집단의 경기불안에는 연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연령이 적을수록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래 경제상태에 대한 전망과 사회경제적 성공이 경기불안수준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쳤다. 노년층의 경기불안에는 거주지역변수만 영향력을 보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농촌 거주 노년층에 비해 불안수준이 0.696점 높았으며, 소도시에 거주자의 불안이 농촌 거주자에 비해 0.676점 높게 나타났다.

〈표 6〉 전체, 중년층, 노년층의 금융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체(N=821)		중년층(N=529)		노년층(N=292)	
	B	β	B	β	B	β
성별	.028	.010	-.005	-.002	.074	.027
연령	-.015**	-.143	-.029**	-.131	-.011	-.061
교육수준	.057	.069	.037	.036	.082	.097
배우자유무 ^D	-.179	-.053	.194	.053	-1.364	-.444
배우자취업유무 ^D	-.044	-.100	-.023	-.050	-.186	-.446
거주지역(농촌) ^D						
대도시	.407**	.154	.063	.025	.609**	.215
소도시	.447**	.161	.102	.038	.641**	.220
월평균근로소득(만원)	-7.25E-006	-.026	-2.39-005	-.082	1.07E-005	.037
기타 소득(만원)	2.14E-005	.047	7.67E-006	.017	2.74E-005	.036
계층귀속감	-.063*	-.082	-.079	-.101	-.050	-.066
비교소득수준	-.074	-.058	-.051	-.040	-.131	-.093
부모 비교생활수준	-.151***	-.120	-.124*	-.103	-.164	-.125
자녀 미래생활수준	-.049	-.037	-.062	-.051	-.029	-.020
과거 비교생활수준	-.058	-.040	-.031	-.023	-.131	-.082
미래 경제상태	-.091	-.061	-.075	-.052	-.115	-.074
사회경제적 성공	.199**	.115	-.181*	-.105	-.203	-.120
상수	5.796***		7.645***		7.984***	
R ² (Adj. R ²)	.141(.124)		.104(.076)		.187(.140)	
F값	8.228***		3.698***		3.945***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전체, 중년층, 노년층의 경기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체(N=821)		중년층(N=529)		노년층(N=292)	
	B	β	B	β	B	β
성별	.000	.000	.005	.002	.009	.003
연령	-.013**	-.127	-.026**	-.121	-.007	-.038
교육수준	.052	.064	.027	.028	.073	.087
배우자유무 ^D	-.396	-.120	.265	.075	-2.835	-.932
배우자취업유무 ^D	-.073	-.171	-.008	-.019	-.396	-.959
거주지역(농촌) ^D						
대도시	.404**	.156	-.001	.000	.696***	.248
소도시	.446***	.164	.056	.022	.676***	.234
월평균근로소득(만원)	-7.57E-006	-.028	-2.33E-005	-.083	1.57E-005	.056
기타 소득(만원)	2.63E-005	.060	1.56E-005	.036	2.58E-005	.060
계층귀속감	-.059	-.079	-.052	-.070	-.084	-.111
비교소득수준	-.065	-.052	-.077	-.062	-.060	-.044
부모 비교생활수준	-.077	-.062	-.055	-.047	-.056	-.043
자녀 미래생활수준	-.052	-.041	-.058	-.049	-.063	-.045
과거 비교생활수준	-.098	-.069	-.068	-.052	-.174	-.110
미래경제상태	-.114*	-.078	-.142*	-.100	-.067	-.043
사회경제적 성공	.165**	.097	-.159*	-.095	-.173	-.103
상수	6.038***		7.440***		9.314***	
R2(Adj. R ²)	.123(.105)		.094(.066)		.062(.113)	
F값	7.028***		3.337***		3.301***	

^D ; Dummy variable,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인간의 노화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인 만큼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건강과 외모의 변화,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심리적 위축감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노후불안은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인지될 수 있다. 개인의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길어지나 은퇴와 소득 상실로 인해 노후부양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가족구조 및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되어 앞으로 자녀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으

로는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 등으로 인해 노후불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중년층은 부모부양의 부담과 과도한 자녀부양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실행하기 어려우며,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 노후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중년 이전 세대인 노년층의 빈곤율 또한 높다. 따라서 노후 경제적 문제로 위협받고 있는 중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불안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두 집단의 노후불안의 양상과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의 경제적 노후불안 중 실업 및 빈곤불안과 주택가격불안은 일반적 특성 변

수인 거주지역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반면 금융불안, 경기불안은 배우자 취업유무와 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가 취업한 집단의 금융 불안, 경기불안수준이 비취업자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소득 증가와 향후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득이 낮거나 부채부담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제일 낮은 집단의 금융 불안수준과 경기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는 이들의 금융기관 활용도가 낮을 가능성, 또는 연령, 거주지역 및 직업과 관련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금융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은 네 가지 불안요인에서 각각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농촌지역 거주자의 불안수준이 소도시 및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에 따라 각 불안요인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주관적 경제상태를 낮게 인식하는 하 집단의 불안수준이 높았다. 즉, 현재의 경제상태를 낮게 인식하는 것은 노후 경제상태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성공은 모든 불안요인에서 뚜렷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이 가장 낮은 하 집단의 경제적 노후불안수준이 가장 높았다.

둘째, 경제적 노후불안 중 실업 및 빈곤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의 영향력이 크며, 주관적 경제상태요인이 주요 요인이었다. 연령은 전체 조사대상자 및 중년층 대상자의 불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중년층의 연령이 노후불안에 강한 영향력을 보인 결과는 이들의 경기부진과 조기퇴직, 은퇴, 실업의 우려가 큰 반면 자녀교육과 부양의 책임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향후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순옥 외(2008)의 연구에서 40대의 전체 노후불안수준이 가장 높으며, 50대의 심리적 불안정 수준이 30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비교생활수준은 전체 및 중년층, 노년층의 실업 및 빈곤불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오히려 낮거나(방하남 외, 2010),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정순돌·이현희, 2012)와 유사한 경향이다. 흔히 중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쟁적인 노동시장,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후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자신의 생활수준이 부모에 비해 높지 않다고 인식하며 노후불안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셋째, 전체 대상자의 주택가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연령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불안수준이 더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특히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낮고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후 주택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주택가격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중년층에서도 나타난다. 중년층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가격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거주지역은 전체 대상자와 노년층의 주택가격불안에 주요 영향요인이며, 특히 노년층 집단에서는 가장 큰 정적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농촌에 비해 도시 거주자가 인지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이 더 크며, 노후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율이 큰 노년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비교생활수준은 전체 및 중년층, 노년층의 주택가격불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넷째, 전체 대상자와 노년층의 금융 불안에는 거주지역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특히 노년층의 금융 불안에는 거주지역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의 산업, 거주자의 연령, 직업이 제한적이므로 금융 불안에 덜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자

들이 느끼는 국가부채, 주거폭등, 환율폭등 등 금융환경에 대한 불안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년층의 경우 거주지역이 금융불안에 영향을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전체 대상자와 노년층의 경기불안은 거주지역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거주지역만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 거주 노년층의 경기불안이 농촌 거주 노년층에 비해 높았다. 역시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과 관련된 개인의 직종, 일 여부, 소득 등 경제적 상황에 편차가 큰 것이 배경이 될 수 있다. 중년층의 경기불안에는 전체 대상자와 유사하게 연령, 미래 경제상태, 사회경제적 성공이 영향을 미치며, 노년층에서 유일한 영향요인이었던 거주지역의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경기불안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노후불안의 영향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도 전체 대상자의 불안요인 네 가지에 각각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지역 간 산업 기반, 직종과 고용의 차이, 임금 격차, 체감 경기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별과 교육수준, 배우자 관련 요인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근로소득도 경제적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기타 소득은 실업 및 빈곤불안에만 영향을 미쳤다. 최혜지와 정순달(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가족총수입 등의 통제변수가 노후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경제상태요인, 즉 부모 비교생활수준, 미래경제상태, 사회경제적 성공, 계층귀속감 등이 경제적 노후불안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특히 부모 비교생활수준은 전체, 중년, 노년 집단의 실업 및 빈곤불안, 주택가격불안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지난 수십 년 간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등 거시경제적 환경이 향상되었으나 오히려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

게 인식하는 집단은 경제적 취약집단일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노동시장 및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노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것이다. 한편 사회경제적 성공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전체 집단과 중년, 노년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경제적 성공은 전체 집단의 경제적 노후불안의 각 요인에 정적 영향을, 중년층 또는 노년층의 불안요인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집단이 40대부터 노인층에 이르는 광범위한 집단인 반면,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했을 때 비교적 연령 편차가 줄어들면서 전체 집단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중년층의 사회경제적 성공 인식의 분포를 살펴보면 ‘하’에 속한 집단이 전체 대상자 및 노년층에 비해 많고 ‘상’집단이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 및 빈곤불안, 금융불안, 경기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주택가격불안에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점에서 노년층의 구조와 특성이 중년층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불안의 네 가지 요인별로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생활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노후불안요인 별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영향요인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년층과 미래 노년층인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불안의 구조, 그리고 배경으로 작용하는 조건과 원인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년층의 경우 연령이 주택가격불안을 제외한 실업 및 빈곤불안, 금융 불안, 경기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살게 될 중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노후불안을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년층 내에서도 연령의 이질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노후불안수준이 매우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반면 노년층 내에서는 연령이 노후불

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조적으로 중년층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거주지역의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노년층의 금융불안과 경기불안에는 거주지역이 유일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편차가 크며, 도시 지역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노년기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향후 노후빈곤에 처할 우려와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적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따라서 중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노후보장정책과 지원제도가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년층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므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생을 계획하는 연장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로 지원의 첫 단계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의 전직지원제도를 활용해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를 비롯한 생활지원정책, 노인층에 특화된 금융상품과 보험상품 개발,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일과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적 상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령이나 세대와 무관하게 개인의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전망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중요함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인식하는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노후불안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중년층과 노년층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분석 자료 중 노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중년층에 비해 너무 적었던 한편 중년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4년 조사 당시 59세

에 해당하였으므로 59세를 기준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을 구분하였다. 중년층은 40세 이상 60세 미만, 노년층은 65세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구분에 의하면 60세 이상 64세의 대상자들이 중년층과 노년층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령층이 대부분 은퇴 직후에 있고 노후 경제적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보고 노년층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년기 연령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노년층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 연령 비교 집단 간의 차이 뿐 아니라 중년층 집단 내에서도 연령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중년층을 초기 중년층인 예코세대와 후기 중년층인 베이비부머로 세분화시켜 비교하거나 한 집단 내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들이 고령화 시대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요인이 영향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후에 중요한 지지 집단인 가족의 부양, 경제적 지원 등의 자료가 제한되어 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수가 추가된다면 노년층의 자녀와의 자원교환실태 및 중년층의 향후 자녀부양 기대감이 노후불안에 미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2).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의사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159-182.
- 2)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3) 김왕배(200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조사연구,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계획단.
- 4)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

- 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5)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 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6) 박선영(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수애 · 송관재(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 1-29.
 - 8) 박주희(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18.
 - 9) 박창제(2016).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직전 세대의 사적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노인복지연구, 71(3), 305-333.
 - 10) 박형수 · 홍승현(2011).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세연구원.
 - 11)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한국노동연구원.
 - 12) 보건복지부(2010).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13)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14) 백지은(2014). 노인의 노후불안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26, 151-176.
 - 15) 백지은(2015). 고령친화산업 서비스 이용경험과 노후불안에 대한 연구- 서울과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 지역산업연구, 38(1), 47-65.
 - 16) 설동훈(1998). 한국인의 위험인식, 한국사회과학, 20, 22-61.
 - 17) 신계수 · 조성숙(2011). 베이비붐세대의 직업 만족도와 경제적 은퇴준비실태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5(3), 41-50.
 - 18) 유용식(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738-747.
 - 19) 이선형 · 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20)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 72-80.
 - 21) 이윤경(2013). 경제적 노후준비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2) 이정화(2009). 광주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23) 이정희 · 안영식 · 윤소정(2007).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45-355.
 - 24) 정순돌 · 박현주 · 김보경(2011).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신문 기사를 통한 동향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203-223.
 - 25) 정순돌 · 정윤경(2012).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2), 541-557.
 - 26) 정순돌 · 이현희(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8, 209-232.
 - 27) 조명덕(2010).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28) 조선일보(2017). ‘고령사회’ 1년 일찍 왔다, 2017. 2. 22일자 사회 A12면.
 - 29) 조성숙 · 서훈(2011). 우리나라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4), 707-717.
 - 30)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31) 최순옥 · 김숙남 · 신경일 · 이정희(2008). 일부 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 28(1), 19-32.
- 32) 최태을 · 권경주 · 최미영(2016).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4), 221-242.
- 33) 최혜지 · 정순돌(2012). 노후불안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 : 지식과 태도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91-116.
- 34) 홍성희 · 광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 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35) 홍영오 · 송관재 · 박수애 · 이혜진 · 이재창(2006).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 121-160.
- 36) Harris, L.A. & Dollinger, S.M.C.(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87-194.
- 37) Miller, D.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if the aging, Social Work, 26, 419-423.
- 38) Lasher, K.P. & Faulkender, P.J.(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39) Larson, R.(1977).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40) Lazarus, R.S. & Lazarus, B.(1994). Passion &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41) Lynch, S.M.(2000). Measuer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42) Klemmack, D.L., & Roff, L.L.(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756-758.
- 43) Orthner, D.K.(1981). Intimate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the family, Reading, MA: Addison-Wesley.

- 투 고 일 : 2017년 3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3월 31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5월 22일